

# 제 3 세계에 있어서 마르크시즘의 전개 : 하나의 개괄적 설명

金 學 俊  
(서울대학교 社會大 教授)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아시아의 마르크시즘    |
| 2. 아프리카의 마르크시즘    | 5. 라틴아메리카의 마르크시즘 |
| 3. 중동 및 아랍의 마르크시즘 | 6. 맺음말           |

## 1. 머 리 말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서구 열강의 식민지에서 해방·독립된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등 세 대륙 국가들의 세계를 우리는 제 3 세계라고 부른다. 어느 정도의 예외는 있으나, 이 제 3 세계의 핵심적 공통점은 식민지적 과거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대체로 영국과 프랑스 및 벨지엄 그리고 네델란드의 식민지였고, 라틴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폴투갈의 식민지였다. 이들 대륙에 속해 있으면서 식민지의 비운을 피할 수 있었던 국가로서는 아프리카에서 리베리아와 이디오피아를, 그리고 아시아에서 터키·아프가니스탄·네팔·이란·타일랜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의 독립은 명목뿐으로서 열강의 끊임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력을 받아야만 했고, 따라서 제국주의에 대해 식민지적 과거를 가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었다.

제 3 세계의 기본적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국가들은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의 이념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여기서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서구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과 혐오의 이념적 定向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국내 개발 또는 극대화에 있어서 반자본주의적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바꿔 말해, 그들은 대체로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제 3 세계의 이러한 성격과 이러한 선택은 자연히 제 3 세계를 마르크시즘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거나 적어도 심각하게 고려되는 정신적 토양의 지대가 되도록 하였다. 바꿔 말해, 마르크시즘은 제 3 세계에서 자신의 수용과 성장을 위한 비옥한 대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제 3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 몇몇 국가들이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선택하였으나 그것이 좌절되면서 더욱 커졌다.

그러나 제 3 세계의 국가들이 마르크시즘을 수용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들이 나타났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제 3 세계라는 범주 속에 묶여 있는 하지만 그 속의 개별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문화적·정치경제적 배경과 전통은 다르다. 그러므로 마르크시즘을 수용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개별 국가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물며 마르크시즘 자체가 그 발상지인 유럽에 있어서조차 다기다양하게 해석됨에 있어서라.

그러면 마르크시즘이 제 3 세계의 개별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필자의 문헌 조사로는 이 물음에 대해 대답을 주는 국내의 저술은 없다. 제 3 세계에 관한, 그리고 마르크시즘에 관한 논문들과 단행본들은 국내에서도 꽤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되풀이 말하거니와, 제 3 세계에 있어서 마르크시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사례별로 설명해 주는 글을 필자는 찾지를 못했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하나의 작은 노력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독창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제 3 세계에 있어서 마르크시즘의 전개 양상을 교과서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Anderson(1967)의 제 10장(「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주의」)을 골격으로 삼고, 관련되는 논문들과 단행본들로부터의 정보를 덧붙인 것이다.

## 2. 아프리카의 마르크시즘

아프리카에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신봉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이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마르크시즘이 수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프리카의 사회주의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마르크시즘과 갖고 있는 연관성은 무엇인가를

살피기로 하겠다.

앞에서 소개한 책이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 개발도상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가장 흥미있는 이데올로기적 현상의 하나는 아프리카 사회주의이다”(Anderson *et al.*, 1967:177).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거의 異口同聲으로 자신들이 「아프리카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그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 바로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즉 아프리카 사회주의를 개념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정치지도자들은 1962년 12월 다카르(Dakar)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체로 다음 일곱 가지의 내용이 제시됐다: (1) 개발의 시급성; (2) 합리성과 계획; (3)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독특성; (4) 疎外 없는 경제적 극대화; (5) 전통주의와 근대주의의 딜레마; (6) 대중의 동원; (7) 세계 連帶의 필요성. 이처럼 여러 갈래로 해석되었다는 사실은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개념적·이념적 복잡성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多義的인 아프리카 사회주의에서 적어도 세 가지로 압축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륙적 正體意識의 문제(the problem of continental identity)」이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의 사회주의는 유럽의 사회주의보다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공동체적 뿌리에 따라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발전의 위기(the crisis of economic development)」이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계획과 자극 및 사회적 동원을 통해서만 아프리카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통제와 계급 형성의 딜레마(the dilemmas of control and class formation)」이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아프리카 각국이 자신의 다양성을 하나의 동태적 민족주의 속으로 용해시켜 그것을 통해 계급적 분열성의 출현을 방지하겠다는 노력에서 아프리카 사회주의를 이해하려는 것이다(Friedland and Rosberg, Jr., 1964:1-11).

아프리카 사회주의를 개념적으로 이렇게 특징지어 볼 때,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일차적 관심은 그것이 마르크시즘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느냐의 물음으로 집중된다. 결론부터 말해, 아프리카 사회주의와 마르크시즘의 연관성은 대단히 약하다.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마르크시즘의 정통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점은 마르크시즘의 이론을 거부하면서 19세기 자유주의의 원칙들을 믿고 있는 후루에보이그니(F. Houphouet-Boigny)대통령 같은

이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尹謹植, 1981:81). 앙크루마(Kwame Nkrumah)대통령이 “나는 비종교적 기독교인이며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이지만 그 양자 간에 아무런 모순을 발견할 수 없다”고 술회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결국 인간 존엄성의 상승과 사회정의의 규정 및 기회균등의 확립이며, 경제적 평등을 위주로 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설명되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사회주의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尹謹植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이 모든 인물들은 자신들이 사회주의 이념의 지지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경우, 이들은 「아프리카적」이라는 형용사에 역점을 두면서 한편 「사회주의」라는 實體를 사회적 정의, 동포애, 상호상부, 합리적인 근대행정과 정부라는 구호들로 대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검은 대륙의 발전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주장자와 지지자들은 전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역으로 아프리카인들은 그와 결부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가권위(권력)를 제금지배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민족해방과 사회적 발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자 한다. 그들은 이상주의적 사회주의를 자백하고, 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종교적 가치를 강조한다(재인용, 尹謹植, 1981:91).

이상의 진술은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전제 위에서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어떻게 나뉘어지며, 그것들은 마르크시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 과격한 등원 사회주의

투레(Sékou Touré)집권하의 기니, 앙크루마 집권하의 가나, 브라자빌 콩고, 말리 등이 일종의 「과격한 動員 사회주의(radical, mobilization socialism)」에 속한다. 이 나라들의 지도자들 역시 다른 아프리카 사회주의자들처럼 아프리카의 문화적 독특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한 아프리카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급격한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를 재조직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주의에 역점을 둔다.

바뀌 말해, 그들은 사회주의를 사회적 工作的 「과학적」수단으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련이나 중공 또는 어느 다른 공산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을 지지하고 있으며 소련의 발전 또는 중공의 발전을 自國의 모델로 설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마르크시즘—레닌이즘에 대한 신앙심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아프리카의 어느 다른 사회주의자들보다 가장 강하다.

그들에게 전통적인 아프리카 사회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가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프리카의 전통이 보존·고양되어야 할 사회체제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근대화에 대한 장애로서 수정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간주한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리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에 사기업의 역할은 제한되거나 소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도 물론 중요한 차이가 있다. 말리가 가장 교조주의적인 편이다. 뚜레는 반제국주의 투쟁과 지배 정당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新레닌이즘의 입장에 서 있었다. 이에 비해 앙크루마는 사실 엄격한 이데올로기적 정통성과는 거리가 먼 지도자였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의 이념 체계를 개별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뚜레의 기니 사회주의가 지닌 특성은 「사회적 정의의 원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尹謹植, 1981:84-85). 오랫동안 노동조합 운동에 참여했던 뚜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농촌 및 도시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개선이 가장 긴급한 과제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제의 달성으로써 사회적 정의가 비로소 구현된다고 보았으며, 그 실천적 이데올로기가 바로 사회주의라고 풀이했다. 뚜레의 사회주의 개념에 유사한 입장에서 있는 이가 말리의 케이타(Mcdibo Keita)대통령으로서 그 역시 농민과 공업 노동자의 생활조건 향상을 가장 중요시했다. 특히 그는 “그가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하고 부르조아化에 대한 투쟁에서의 중요한 도구로서 간주하는 농업의 개혁과 협동조합의 축진을 그의 핵심적 과제로 보았다”(尹謹植, 1981:85). 이와 동시에 그는 특권층의 특권 제한과 평등 원리를 강조했다.

앙크루마의 「가나식 사회주의」 또는 「양심주의(consciencism)」는 평등과

인간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업화를 가속화하고 중요한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는 한편 기존 지배계급의 특권을 제약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그가 옹호한 것은 「혁명적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사회주의적 변화에 반대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고, 이러한 투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강력한 일당제도」를 옹호하고 영국식 모델에 따라 도입했던 의회민주주의의 해체를 지지했다. 그의 사회주의는 그의 스승으로서 나이제리아 민족주의의 창시자인 아지키웨(Nnamadi Azikiwe)와 아월로워(Obafemi Awolowo)의 페비안 사회주의와 대조된다. 이 두 사람은 영국 노동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과 점진적 개혁을 옹호했으며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를 복지국가의 실현에 두었다. 바꿔 말해, 그들은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유국유화나 정치의식의 문제보다는 민주적 정부형태, 생산과 소비에 관한 국가적 감독, 私的 開發企圖과 공적 개발기도의 계획화와 시행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尹謹植, 1981:86-87).

### 공동체적 사회주의

탄자니아의 니예레레(Julius Nyerere)대통령과 세네갈의 생고르(Leopold Senghor)대통령은 일종의 「공동체적 사회주의(communitarian socialism)」를 강조했다.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모두 아프리카 전통사회에는 공동체적 특성이 있었다고 파악하면서 이것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은 같다.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 교리로써 아프리카의 사회적 조직을 근대화시키고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사회주의가 협력의 바탕 위에서 농촌 개발과 지역 발전을 포함에 있어서는 적합한 이념적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국가의 전반적 개발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보다 실용적 방식에 의존하여 예컨대 공기업과 사기업 사이의 조화와 혼합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그들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시즘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여 주는 것이다.

먼저 생고르를 살펴 보자(洪淳鎬, 1979). 뛰어난 지성적 정치가인 생고르는 마르크시즘을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으로 이해한다. 이 점은 “나는 마르크

스를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학자, 철학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 휴머니즘이라는 철학이 마르크스 사상의 기본적 성격이며, 그것은 상시몽, 프루동, 푸리에르를 비롯한 프랑스의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의 기여이기도 하다”라는 그의 주장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마르크시즘을 휴머니즘으로 이해하면서 그는 자신의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휴머니즘과 아프리카의 공동체적 전통의 결합이라고 풀이한다. 풀어 말해, 그는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공동체를 국가적 규모로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洪淳鎬, 1979:186).

그는 마르크시즘을 휴머니즘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르크시즘의 다른 요소들 즉 유물론적이며 경제결정론적인 계급투쟁을 배격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사상적 기반은 마르크스보다 오히려 테이야르(Teilhard de Chardin) 신부에 가깝다.

니에레레 역시 사회주의의 원칙들과 아프리카 전통들의 복합을 강조했다. 여기서 아프리카 전통이라고 할 때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가족의 유대였다. 즉 가족 내의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연장자의 우월한 지위와 지도 그리고 식구들 사이의 우애와 협력의 정신들이 곧 바로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협동조합운동과 일당제도를 옹호하고 나왔으며, “[……] 상호부조의 의무화, 공동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 그리고 역으로 私的 부유화의 금지, 권력분립의 승인, 연장자의 공익에 알맞는 경제적 감시 기능 행사권이 결과되고 있다”(尹謹植, 1981:87). 이어 그는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토지의 국유화정책을 채택했다. 그는 1963년과 1965년 두 차례에 걸쳐 토지의 공적 단체와 국가 단체로의 몰수를 실시하고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있는 일은 그가 이러한 운동을 통해 농촌에 있어서의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농촌에 대해서는 도시 식량 공급의 책임을 부과시켰다는 점이다.

니에레레의 사회주의는 토지정책에 있어서는 과격한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그는 실용주의의 측면도 두드러지게 보여 주었다. 즉 그는 토지에 이어 유전과 금강석 광산업을 국유화한 뒤에는 다른 사기업들을 다치지 않았으며 언제나 외국투자를 유치하고자 시도하고 있고, 보다 높은 생산성과 생산 증가를 위해 주요한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니에레레의 사회주의觀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경우에 있어서이다(尹謹植, 1981:88). 첫째가 1964년 8월 달에스살람(Dal-Es-Salam) 대학교 개교일 연설이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목적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동료의 정신으로 법의 보호 아래 상호의 복지를 위해 협력하는 자유롭고 동등하며 건전하고 만족하는 시민들의 사회”의 건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한 사회의 정치체제는 언론의 자유, 굶주림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국방의 의무 등의 기초 위에 서 있다고 선언했다.

둘째가 아루샤(Arusha)선언이다. 1967년 2월 탄자니아당 상임위원회가 탄자니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요약한 이 선언은 빈곤과 굶주림 및 수탈에 대한 투쟁, 사회주의의 경제적 원칙과 정치적 원칙의 적용, 그리고 아프리카와 전 세계 노동자·농민의 권리보장 및 그를 통한 복지사회의 실현 등을 다짐했다. 이 선언은 「권리 남용에 의해 부유해진 부르조아지와 부유층의 권리 제한」, 그리고 「외국자본에의 종속성의 궁극적 종결」을 촉구했다.

이 선언을 계기로 탄자니아의 사회주의는 급진적 성격을 표면화시켰다. 즉 “농지 개혁과 토착적 농업생산품 우대와 산업화를 강화시킬 조치들이 결과했다. 또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유경제 부문과 협동조합경제 부문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상이한 산업체들의 국유화 조치를 의결했다”(尹謹植, 1981:88). 이와 더불어 니에레레의 일당제 독제는 점점 강화되고 야당과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다.

### 온건한 복지 사회주의

케냐의 케냐타(Jomo Kenyatta)대통령과 음보야(Tom Mboya)를 비롯한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온건한 복지 사회주의(moderate, welfare socialism)」를 지향한다. 이들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중간의 길(middle way)」로 이해하며, 실용주의적이고 발전적인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국가가 경제성장을 고취시키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믿지만 그것이 다원주의적인 사회경제적 질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의 공공봉사적 기능을 증대시켜서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회의 총체적 동원을 시도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나라가 케냐이다. 케냐 정부가 1965년에 발행한 『아프리카 사회주의 그리고 케냐에 있어서의 계획에 대한 그 적용(African Socialism and Its Application to Planning in Kenya)』은 아프리카 사회주의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신축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회주의가 직면할 문제들, 그리고 인민의 수입과 희망은 자주, 성급하게 또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경직되고 교조주의적인 이론 체계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생존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케냐의 사회주의는 이처럼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복지 사회주의이다. 케냐의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라기보다는 라스키(Harold J. Laski)교수의 사회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관찰은 바로 이 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가 한때 친공국가로 오해됐던 것은 케냐타가 “1935년 4개월 동안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적 혁명 투쟁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독립 후에도 후진국 케냐에 있어서 우루(Uhuru: 자유)보다도 하람비(Harambee: 전진)가 더욱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적인 압력 때문에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洪淳鎬, 1979:185). 그러나 케냐는 곧 마르크시즘의 계급투쟁을 거부하고 마르크시즘 자체가 아프리카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그 이념적 성격을 명백히 했다.

#### 「혁명적 민주정당」의 사회주의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에는 「혁명적 민주정당」들이 집권하여 자신의 나라를 「사회주의 定向的인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앙골라, 베닌, 콩고, 이디오피아, 모잠비크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전위대적」 또는 「엘리트적」 혁명 민주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이들 정당은 당원들에게 투철한 계급의식과 이념적 요소를 요구하며 「과학적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른바 「인민의 민주적 힘」을 행사한다는 이 엘리트 집단이 일반적으로 1970년대에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이행해 갔다고 본다. 이들 국가는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구별되는데, 그 까닭은 비록 그들 대부분의 민족경제가 국가 부문에 의해 지배 당하고는 있지만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있다(아프리카

카이외의 지역에서 이 범주에 들어오는 나라로는 중동의 남예멘과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이 있다)(閔萬植, 1983:72-73).

### 3. 중동 및 아랍의 마르크시즘

중동 및 아랍에서도 아프리카에서처럼 마르크시즘이라는 용어보다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 속에서도 마르크시즘은 대체로 배격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들은 마르크시즘의 무신론 또는 유물사관이 자신들의 신앙인 회교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마르크시즘을 소련 제국주의의 이념적 도구로서 경계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그들은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지역의 사회주의가 지니는 특성은 사회주의를 궁극적 목표로 여기기보다는 근대화의 사회적 내용으로 여기는 데 있다. 즉 이곳의 사회주의는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의 도구 또는 행동강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강령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일차적 기관으로서 정부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랍 세계에 있어서 정부는 일종의 「사상적·조직적 핵(ideological organizational nucleus)」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점에서 중동 및 아랍 사회주의를 국가주의(statism)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Karpat, 1968:15-17). 이 지역의 사회주의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로 나뉘어 살펴 볼 수 있다.

#### 통일아랍공화국의 군부 사회주의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통일아랍공화국의 「군부 사회주의(military socialism)」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의 세계를 보건대, 개혁주의적인 군부 지도자들은 조직·사회적 동원·정부의 권력과 경제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발전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했다. 파키스탄의 칸(Ayub Khan), 엘살바도르의 리베라(Julio Rivera), 터키의 아타투르크(Kemal Ataturk), 페루의 오드리아(Miguel Odria), 아르헨티나의 페론(Juan Perón)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했다. 이에 비해 버마와 이라크 및 이집트에 있어서만 군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사회주의 강령과 동일시했다.

이집트의 나세르(Gamal Abdel Nasser)의 경우, 그에게 문제되었던 것은

정부의 형태가 아니라 정부의 내용이었고 따라서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적·협동적 민주주의(socialistic-cooperative democracy)」를 이룩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정당없는 민주주의」라는 일종의 군부 과두정치를 실시했던 것이다. “만일 의회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상층 계급의 착취와 무능을 영구화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의 진실한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닷세르는 그의 이데올로기가 외세 수탈의 종결(反帝)과 내부 착취의 종결(反封建 사회혁명) 위에 인간다운 삶을 갈망하는 인민의 열망을 대변한다고 옹호한다. 이러한 닷세르의 이론 전개 속에 마르크시스트적 語調가 찾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닷세르는 자신의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 방법의 하나로 마르크시스트적 개념을 사용할 뿐이지 마르크시즘의 세계관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닷세르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그가 1965년 5월 16일 아랍사회주의동맹(Arab Socialist Union)에서 행한 다음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만일 우리가 물려 받은 사회의 경제적 기초가 강력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새 체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후진적인 경제적 기초를 물려 받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단계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건전한 경제적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건전한 기초를 쌓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회주의적 변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우리가 옹호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세울 수 없다.[……]물론 건전한 경제는 일차적으로 공업상의 기초 작업에 의존해야 한다. 정말이지, 혁명의 발발 이후, 우리는 이 경제적 기초를 수립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모든 모순들을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모순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며, 그 모순들은 반동 세력에 의해 계속적으로 부양될 것이다. [……] 국가가 하루 밤 사이에 또는 1년이나 10년 이내에 대중의 모든 요구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요구들의 충족여부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잠재력들에 달려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잠재력들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건전한 경제적 기초를 창출함에 의해서이다[……](제인용, Anderson et al., 1967:180).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나세르가 1952년 군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직후부터 사회주의를 표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쿠데타 직후의 나기브(Ali Muhammad Naguib) 정부(1952~1954)와 그 직후의 나세르 정부는 단순히 민족주의 혁명을 추구할 뿐이었다. 그러나 1956년과 1958년 및 1961년의 세 차례에 걸쳐 나세르 정권은 사회주의의 성향을 나타냈다. 1956년은 서구와의 대결의 해였다. 아스완댐 건설을 위한 지원 약속을 미국이 돌연히 철회하자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 버렸다. 이 조치가 영국과 프랑스 및 이스라엘의 이집트 침공을 불러 일으키자 나세르는 다시 이집트의 영국 및 프랑스 재산을 국유화해 버린 것이다. 2년 뒤인 1958년 시리아와 이집트가 통합하여 통일아랍공화국이 창건되자 사회주의적 요소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나세르의 아랍 민족주의 속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61년 통일아랍공화국으로부터 시리아가 이탈해 나가자 나세르의 이데올로기는 더욱 더 과격해졌다. 나세르는 연방의 붕괴가 시리아 뿐만 아니라 이집트 내의 「반동 세력」의 책동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집트 내에서 공공 부문을 확대시키고 유산 계급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던 것이다.

#### 알제리아의 농민 사회주의

벤 벨라(Ben Bella)가 창시한 알제리아의 사회주의는 농민이라는 단일 계급이 지배적 역할을 수행한 혁명운동의 바탕 위에서 발전했다는 점이 아프리카와 중동 및 아랍 사회주의들 가운데 독특하다고 하겠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과는 달리 알제리아의 민족해방전선(FLN)은 자신의 전략을 농촌에 기반을 둔 반란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민족해방전선의 도시 조직망이 1957년 마쉴(Jacques Massu)장군의 공정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해체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알제리아 민족해방 운동의 운명은 이제 거의 전적으로 농민의 지지에 달려 버렸기 때문이었다.

농촌에서는 토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1962년 현재 알제리아 전체 인구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한 유렵인이 약 2천 7백만 헥타아르의 토지를 장악하고 있음에 반해 알제리아인 전체는 겨우 7백만 헥타아르의 토지를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에 굶주린 알제리아 농민들에게 토지를 약속하는 경우, 그것은 농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불러 일으킬 것이

라는 점에 민족해방전선은 주목했던 것이다.

민족해방전선이 농촌 중심의 전략에 치중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서인도제도의 프랑스령 마르띠니끄섬 출신의 정신과 의사 파농(Frantz Fanon)의 혁명 이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植民者는 절대악이며 식민주의는 폭력을 본질로 하고 있다고 확신한 파농에게 非식민지화 곧 독립운동은 언제나 폭력적인 현상일 수 밖에 없었고 식민제도의 「더러운 때」에 묻은 일체에 대해 “자각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지배자의 폭력을 無爲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식민제도의 「더러운 때」에 묻지 않은 유일한 계층으로 파농은 농민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도시 프롤레타리아트조차 「때묻은 층」이었으며 따라서 혁명운동의 주축이 될 자격이 없었다. 이처럼 농민이 강조되는 점에서 알제리아의 사회주의는 카스트로(Fidel Castro)의 사회주의와 毛澤東의 사회주의에 비슷하다.

알제리아 농민 사회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혁명의 高揚이란 점이다. 신생국가에서는 혁명이 국민적 일체감의 기초를 제공하고 수립된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계속적이고 영구한 상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바꿔 말해, 혁명이 어느 한 개인이나 행정부의 修辭上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의 계속적인 이데올로기의 중심이 된다. 볼리비아, 버마, 쿠바, 멕시코, 중공, 월맹, 통일아랍공화국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에 계속적인 정치적 상징으로서 혁명을 제도화하는 데 실패한 곳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가나, 과테말라 등이다. 그런데 알제리아는 중공과 함께 혁명의 승배가 어느 곳보다 뿌리 박힌 곳으로 헌법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혁명」을 국가의 공식 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튀니지아의 사회주의

튀니지가 독립을 획득한 1956년 당시에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최고의 戰士(Combattant Supreme)」인 부르기바(Habib Bourguiba)대통령과 그의 집권정당 네오데스투어(Neo-Destour: 新自由憲政)는 「계획」이라든가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튀니지가 사회주의로의 선회를 보인 것은 1961년이였다. 튀니지아 내의 좌파 세력을 효율적으로 제거한 부르기바 대통령은 1961년을 「계획의 해(year of the plan)」로 선언하고 곧 10개년 경제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네오데스투리안 사회주의(Neo-Destourian Socialism)」를 공식으로 표방하고 네오데스투르당을 데스투르사회당으로 개명했다.

그러면 네오데스투리안 사회주의의 이론적 출발점은 무엇인가? 당의 공식 이론가들에 의하면, 그것은 마르크스적 계급투쟁의 전개를 의미하지 않는다. 네오데스투리안 사회주의의 일차적 관심은 인간 존엄성의 양양에 있으며 그에 바탕을 둔 국민적 연대의 강화에 있다. 풀어 말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삶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다수의 희생을 전제한 소수의 부유는 억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과의 연대의식이 강조되었다. 당의 공식 이론가들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요소는 이마 이슬람의 정신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주장한다(Micaud, 1964: 142-143).

### 바트 사회주의

아랍권의 독특한 사회주의인 바트(Ba'th al-'Arabi al-ishtiraki: Arab Socialist Resurrection—아랍사회주의 부흥)운동은 아플라크(Michel 'Aflaq)와 비타르(Salah al-Din Bitar)에 의해 1940년에 시작됐다. 최고 지도자격인 아플라크는 시리아 출생으로 파리 유학생 시절 공산주의자가 되었으나 귀국하여 중학교 교사가 된 뒤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곧 회교·아랍민족주의·프랑스 실존주의·낭만주의·사회주의를 복합하여 바트 사회주의를 창시했는데, 이 이데올로기는 시리아와 레바논 및 이라크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트 사회주의는 특히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공무원과 교사 및 청년장교단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트 운동의 핵심은 역시 사회주의로서 현장 제 4조는 사회주의를 아랍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바트에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포리일체의 관계를 갖는다. 바트 현장은 또한 사회주의를 물질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면에 있어서 계속적인 성장과 개인 사이의 강한 우애를 호소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경제 조직 문제 이상의 것, 즉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점에서 바트 사회주의는 자신들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과 명백히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바트 사회주의는 또한 소련을 「또 하나의 제국주의」라고 단정하고 소련식의 공산주의를 거부한다('Aflaq, 1968:185-192).

바트당의 강령으로 농촌 착취의 제거, 외국인 상업활동의 엄격한 규제, 노동자의 경영 참가, 은행의 국유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노동자의 임금도 국가에 의해 결정되며, 국유화된 은행의 대부는 무이자론 원칙으로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바트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표방하지도 않으며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지향하지도 않는다. 빈더(Leonard Binder)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바트 사회주의는 마르크시즘도 서구 사회주의도 아니며 다만 저계급의 독재를 통해 상층 계급의 사회적·경제적 수준을 저계급 수준과 동일화하려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Binder, 1964:183).

#### 아랍사회주의와 마르크시즘의 차이

여기서 아랍 사회주의와 마르크시즘의 차이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자. 통일아랍공화국의 유력지 『알아람(al-Ahram)』의 편집인으로서 나세르의 측근이었던 하이칼(Muhammad Hasanayn Haykal)은 양자에는 대체로 일곱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Haykal, 1968:156-161).

첫째, 공산주의는 공산당에 의해 대표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프롤레타리아 이외의 모든 계급을 제거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아랍 사회주의는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의 융합」을 지양한다. 여러 계급이 함께 존재하되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제 몫 만큼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므로 복수와 처형의 방식을 취하는 공산주의적 계급 투쟁과는 달리, 아랍 사회주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계급간 갈등의 해소를 옹호한다.

둘째, 공산주의는 모든 재산 소유자를 착취자로 간주하며 그 때문에 착취 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 소유자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아랍 사회주의는 정당한 노동의 결과로서의 재산과 착취자의 재산을 구별하여 전자는 철저히 보호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그를 죽이지 않으며 다만 그 착취의 수단을 국유화한다.

셋째, 공산주의는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한다. 그러나 아랍 사회주의는 그 재산이 착취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면 사유를 인정한다. 그리고 착취에 목적을 둔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가 수용할 때에도 배상을 해 준다. 즉 「배상있는 국유화(nationalization with compensation)」를 지향한다.

넷째,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하나의 도구로서, 그는 그의 필수적 요구의 충족에 필요한 만큼만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아랍 사회주의에서는 국가란 인민이 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이다. 바꿔 말해, 아랍사회주의에 있어서 개인은 사회 구조의 기초 그 자체인 것이다. 개인 그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랍 사회주의는, 미래를 강조하면서 현재의 삶을 경시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현재의 삶을 중시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공산주의가 “내일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오늘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강조함에 비해 아랍 사회주의는 “그 희생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안된다. 만일 그 한계를 넘는 경우, 그것은 개개인의 자유와 인간성을 죽인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공산주의는 생산의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스탈린의 비인도적 강압 통치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 사회주의는 현 세대의 생존권을 존중한다.

여섯째, 공산주의에는 비참한 복종이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에는 공식적 교리만이 있을 뿐이어서, 공산주의자는 누구나 마르크스와 레닌과 모택동에게 충실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사고가 허용되지 않아서 일종의 사상적 無動性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아랍 사회주의는 자유로운 창의성을 중시한다. 아랍 사회주의자는 자신의 민족사, 자신의 민족적 전통, 자신의 인민의 문제들에게 충실한 학생일 뿐이다.

일곱째, 공산주의는 정치적 조직이 공산당 하나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유 때문에 최고의 그리고 전혀 도전받지 않는 권위는 전적으로 당의 손 안에 있다. 이에 반해 “아랍 사회주의는 정치적 행위를 에워싸는 조직은 모든 국민에게 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아시아의 마르크시즘

마르크시즘 또는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가장 多義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이 개발도상의 세계에 있어서는 바로 아시아일 것이다. 그 이념적 스펙트럼은 중공의 모택동식 마르크시즘—레닌이즘으로 그것의 북한식 및 월맹식 변형을 거쳐,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유럽적이며 비교적 정통적인 사회주의 정당들에 이어, 수카르노(Achmed Sukarno)와 우바 세(U Ba Swe) 및 네루(Jawaharlal Nehru)의 토착적 변형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그 내용이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각국의 마르크시즘 또는 사회주의 이

론가들이 자국의 마르크시즘 또는 사회주의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식 사회주의(Socialism of Indonesia)」, 우누(U Nu)는 「사회주의로 가는 버마의 길(the Burmese Way to Socialism)」, 모택동은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의 중국적 변용」, 네루는 「인도의 특별한 혼합경제(the special mixed economy of India)」, 그리고 시아누크(Nordom Sihanouk)는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등등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독특성을 강조하지만, 이들 사회주의는 크게 보아 두 흐름으로 대별된다.

#### 마르크시스트—레닌이스트형

마르크시스트—레닌이스트형은, 폰 데르 메덴(von der Mehden)교수의 분류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형이다(von der Mehden, 1969:117-118). 이것은 스탈린이즘과 트로츠키이즘 및 티토이즘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포함한다. 이들은 물론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인정하며, 민족적 독립을 궁극적 목적의 달성으로 보지 않고 다만 사회적 변혁과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족 부르조아지가 타도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주의가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루와 우누 그리고 수카르노와 낫세르 등이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기민이라고 주장한다.

아시아의 마르크시스트—레닌이스트형 사회주의도 다시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가 중공형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국 공산주의의 이념적 내용 및 특성을 자세히 분석할 수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공은 인민공사 제도 아래서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대중의 사회조직과 농민의 토지장악에 있어 훨씬 앞질러 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의 修辭가 使命的인 열성을 과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감정호소적이며 공격적이고 교조주의적이라는 사실이다.

둘째가 북한과 월맹형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자는 중국형과 소련형의 중간 지점에 있다. 셋째가 집권하지 못한 공산당들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공통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의 특정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냐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평화적 방법을 통한 집권이 어

렵다는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중공식의 투쟁—집권 방식에 기울어지게 하면서도, 과격한 방식이 대중을 당으로부터 소외시킨다는 판단은 온건 노선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민족주의·민족적 단결·사회경제적 개혁·반제국주의를 표방한다.

### 교리적 사회주의

아시아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 가운데 마르크시스트—레닌이스트형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대부분 「교리적 사회주의(doctrinal socialism)」에 속한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및 인도, 그리고 1962년 이전의 버마와 수카르노 하의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 등의 점진적·민주적 사회주의 정당들을 포함한다.

이들의 점진적 성격은 이들이 표방하는 이념적 지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말레이시아는 「마르헤니즘(Marhaenism)」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민족적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라키아트당(Party Rakyat of Malaysia)은 그것을 「말레이시아의 풍토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주의」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이 유토피아 사회주의도 과학적 사회주의도 아니고 「실제적 사회주의(practical socialism)」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은 보다 더 공식적인 사회주의 강령을 표방한다. 그러나 그 정책은 실제적이면서 온건하고 「필요한 자본주의(necessary capitalism)」에 대해 관용적이다. 인도의 의회당(Congress Party)도 「혼합 경제」를 지지하며, 우누의 버마 역시 점진적·의회적 사회주의를 앞세웠다.

지금은 소멸되었지만, 수카르노의 사회주의부터 살펴기로 하자. “우리가 歐美에서 배우는 것은 기술과 과학뿐이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공산당선언에도 따르지 않고 미국의 독립선언에도 따르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 자신의 역사에서, 다른 무엇이, 보다 우리에게 합당하고 보다 실질적인 다른 무엇이 생겼기 때문이다”(제인용, 金相浹, 1963:240)라는 그의 선언에 잘 나타나 있듯이,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의 토양에 맞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정립을 주장했는데, 이 새 이데올로기에서 사회주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1959년 8월에 발표된 「정치 선언(Political Manifesto)」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기본요소를 묶은 우스데크(USDEK)에도 「인도네시아적 사회주의(Indonesian

Socialism)」가 들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세 개의 주요 세력의 단결을 뜻하는 나사콤(NASAKOM) 속에도 공산주의가 들어 있다. 또 레소빔(RESO-PIM)이라는 구호에도 사회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는 수카르노의 정치 상징에서 자주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에서 사회주의는 어떻게 풀이되었나?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은 그들이 사회주의를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적 사회주의를 서구 사회주의와 고통로용(gotong-rojong : 협동)과 같은 인도네시아적 전통의 특별한 혼합으로 이해하는 정도였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계획 경제를 의미했다.

비마의 우누의 경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똑같이 부인하면서 비마의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민주주의—이른바 제 3의 비마의 길—을 모색하면서, “사회적인 혁명을 수반하지 않은 정치적 독립은 서구적인 자본주의 대신 황색 자본주의(변질된 자본주의)를 환치시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사회혁명의 필요를 역설했다. 오늘날의 비마는 사회주의계획당의 주도 아래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네루는 새로운 인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주의형 사회」를 이룩하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

민주주의는 단지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의 최종 목표는 빈부의 현격한 차이, 환언하면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현격한 차이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민주주의까지를 실현하는 데 있다(제인용, 車基璧, 1969:218-219).

여기서 언급된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네루가 생각한 것은 「민주적으로 계획된 集産主義」였다.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은 인정되되 기간산업은 국유화하고 토지를 국가와 개인 간의 협동적 관리 아래 둔다는 내용을 갖는다.

## 5. 라틴아메리카의 마르크시즘

마르크시즘 또는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修辭나 정치투쟁에서 개발도상 세계의 어느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그

유일한 예외가 아마도 마르크시스트를 자처하고 집권한 칠레의 아옌데(Salvador Allende)였을 것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사회주의」라고 불렀을 운동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다른 용어로 호칭되는 예가 많다. 그 이유로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서구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니라 토착적 문화적 유산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유럽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회주의에 대해 수용적임에 반해 라틴아메리카는 사회주의나 마르크시즘이 위협시되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들의 새로운 개혁운동을 과거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운동에서 실패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운동으로부터 구별짓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발전에 대한 열망」으로 이해되는 사회주의가 여기서는 「전체적 경제사회적 혁명」으로 이해되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의 마르크시즘 또는 사회주의를 분류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 점을 인정하면서도 앤더슨 등은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Anderson *et al.*, 1967:184-187).

## 제 2 인터내셔널 사회주의

19세기와 20세기에 유럽에서 나타난 거의 모든 이데올로기 운동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 실증주의, 무정부적 집산주의, 제 2 인터내셔널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등이 그것들이다. (여기서 제 2 인터내셔널 사회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1889년 파리에서 조직된 제 2 차 국제사회주의 대회의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유럽 사회주의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사조와 정치투쟁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 유럽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 정당이 1896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창당됐고 1940년 현재로 최소한 라틴아메리카의 8개 국가에서 창당됐으나, 그 모든 정당들은 국내정치에서 소수파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유럽 사회주의의 전통에 가장 가까이 남아 있는 곳은 우루과이 뿐이다. 1903년과 1915년 사이에 바틀(José Battle)에 의해 그 틀이 짜여진 복지국가의 구조가 그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민주 좌파

페루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 빅톨 아야 데 라 토르레(Victor Haya de la Torre)가 영도한 인민혁명당(APRA: Aprista 또는 People's Party of Peru), 코스타리카의 피구에레(José Figueres)가 영도한 민족해방당, 베네주엘라의 베탄쿠르트(Rómulo Betancourt)가 영도한 민주행동당, 도미니카의 보쉬(Juan Bosch)가 영도한 도미니카혁명당 등이 민주좌파(the Democratic Left)에 속한다(이들은 모두 야당이다).

이 정당들은 자신을 유럽 사회주의 또는 마르크시즘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들의 이데올로기는 페루의 인민혁명 운동과 멕시코 농민혁명의 영향,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의 복지국가 모델 등이 종합된 것으로서 미국 민주당의 자유 진보파의 그것과 비슷하다. 미국이 주도한 남미의 「발전을 위한 동맹」의 목표와 이들이 추구하는 국내정치적 프로그램이 일치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조심스런 친미주의와 강력한 반공주의의 노선을 추구한다.

이 정당들의 프로그램은 실용주의적이어서 상당한 신축성을 보인다. 외국 기업을 통제해서 외국 기업이 국가 발전의 수요에 맞춰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그들은 국유화의 수단을 택하는 대신 규제와 과세의 수단을 택한다.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존 사회경제적 질서를 과격하게 개편하는 방법 대신에 중산층과 상류층에게 돌아 가고 있는 시설이나 제도가 그들에게도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나간다. 여기서 정책상의 역점은 주로 교육·공중보건·수송·사회복지 등에 주어진다. 이들은 경제 발전이 정치적 민주주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정치 과정을 증시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 좌파는 군부와 갈등 관계에 서 있다.

## 기독교 민주주의

1960년대 초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사조에서 상당한 세력을 확보해 나간 이데올로기가 기독교 민주주의(Christian Democracy)이다. 칠레의 경우에는 1960년대 중반에 기독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프레이(Eduardo Frei)가 집권한 바 있으며, 베네주엘라에서 기독교 민주주의파가 제일 야당으로 등장했다. 페루와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그리고 엘살바도르 등에서도 기독교

민주주의 세력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의 정책 정향은 민주 좌파의 그것에 가깝다. 다만 이들은 자신의 정책적 정향을 카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개혁 사상과 휴머니즘의 용어으로써 합리화한다. 특히 마리탱(Jacques Maritain)과 메이야르 등 카톨릭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보다는 훨씬 더 개혁적이어서 스스로를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칠레에서는 한때 기독교 마르크시스트당이라고 자칭한 정당도 있었다.

#### 제도화된 혁명의 절충적 사회주의

1910년의 멕시코 혁명과 1952년의 볼리비아 혁명이 성공하여 이 두 나라에 혁명 정권이 들어서고 혁명 자체를 제도화시킨 이후 이들은 일종의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해 나갔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는 아래에서 살피겠지만 일종의 절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사회주의를 「제도화된 혁명의 절충적 사회주의(the Eclectic Socialism of Institutionalized Revolution)」라고 명명한 것이다.

멕시코 헌법은 “교육은 무료이며 보편적이고 사회주의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조항과 헌법 123조의 유명한 노동 조항은 멕시코 헌법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대표한다. 볼리비아의 민족혁명운동당의 이데올로기도 사회주의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정향 아래 두 나라에서는 철저한 토지 재분배와 경제적 민족주의를 실시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기간 산업(볼리비아의 경우에는 주석 광산, 멕시코의 경우에는 석유와 철도)의 국유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적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외국 사기업의 진출을 받아들이기도 하였고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는 사실이다.

#### 카스트로적 혁명 사회주의

「카스트로적 혁명 사회주의(Castroite Revolutionary Socialism)」는 물론 쿠바 혁명과 더불어 쿠바에서 실시되었다. 외국 기업의 철저한 국유화, 과격한 농촌개혁 및 사회개혁, 총체적 경제 및 사회 동원화를 그 기본 내용으로 하였다.



카스트로주의를 드레이퍼(Theodore Draper)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 내부의 한 경향을 나타내는[...] 가장 극단적인 공산주의적 성향」이라고 지적하고, 레닌주의가 유럽 마르크시즘과 러시아 혁명 전통의 異花受精이었다듯이 카스트로주의도 유럽 공산주의와 라틴아메리카 혁명 전통의 이화수정이라고 평가했었다(Draper, 1965:52-55). 그러나 카스트로에 대해 비판적인 쿠바인 수아레즈(Andrés Suárez)는 드레이퍼가 카스트로리즘을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카스트로리즘 가운데는 유럽 공산주의의 요소가 없다고 단정한다. 수아레즈에 의하면, 카스트로리즘은 그저 「농촌 게릴라의 권위조직에 자리잡은 통정된 정치·군사적 지도체제」일 뿐으로서(Suárez, 1967), 하나의 체계적 이데올로기로 정착하지 못한 느낌이 없지 않다. 1965년까지 카스트로의 이론적 대변자였던 게바라(Che Guevara)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해 무장투쟁 이론과 게릴라 戰士 양성론이었고, 그의 뒤를 이은 드브레(Régis Debray)의 이론 작업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카스트로리즘은 그 시초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혁명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무력 봉기의 중심지를 농촌에 두며, 무력 봉기의 필요성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고 게릴라 전략으로 즉각적이며 비타협적인 무장투쟁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정책을 약화시키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카스트로리즘은, 그리고 “민중이 정규군을 쳐 부술 수 있으며 봉기는 모든 혁명적 수단을 우선한다”는 게바라의 공언은 어느 정도의 호소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카스트로리즘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說이 지배적이다”(閔萬植, 1971:258).

여기서 카스트로리즘과 전통적 공산주의 이념의 차이점을 먼저 생각해 본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마르츠(John D. Marts)가 지적한 것은, “혁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 [공산주의]이념은 물질적 보상으로써 혁명 분자를 자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카스트로리즘]은 혁명 추진을 위해선 도덕적인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Marts, 1970:171-196).

이어 카스트로리즘과 민주 좌파의 이념적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 민주 좌파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존하는 현대적 부문—즉 재산과 계약, 공업조직과 상업적 거래의 형태들, 중요한 私的 국내인·외국인 기업들—이 지니는 가

치를 상당한 범위까지 인정한다. 이들은 다만 그 현대적 부문을 통해 발생한 생산성에 대한 보상이 국민 전체에 균형있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전에 있어서의 문제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카스트로리즘은 현대적 부문 자체가 발전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본다. 카스트로주의자들은 현대적 부문이 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타 부문의 생산성을 착취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거래와 영향의 부패한 網을 파괴하는 것이 사회적 발전의 긴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미국과의 긴밀한 무역과 경제적 연결은 착취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이기 때문이다(Anderson *et al.*, 1967:187).

여기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성장·발전한 마르크시스트적 종속이론과 카스트로리즘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종속이론은 쿠바 혁명의 성공 속에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을 邊衡尹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종속이론이 형성된 배경에 반드시 추가되지 않으면 안되는 요인은 1960년을 전후한 민족해방운동의 폭발적 고양 특히 쿠바 혁명의 승리란 요인이다. 쿠바 혁명은 제 3세계에 대하여 비자본주의적·비소비에트적 발전의 길을 제시했던 획기적 사태였으며, 이는 부르주아 사회과학과 교조적 마르크스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는 종속이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옥한 현실적 토양을 제공했다. 그리하여 어떤 논자(David Booth)는 카스트로 없는 프랭크(Andre Gunder Frank)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까지 말했던 것이다(邊衡尹, 1980:10).

여기서 지적된 프랭크는 물론 종속학파의 대표적 인물의 한 사람인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이다. 부드(David Booth)의 그러한 지적처럼, 종속이론은 반제국주의적 민족해방의 역사적 실천 과정 속에서 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학파 내의 급진적 인사들이 무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옹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게바라流의 게릴라전 실패는 무장 혁명론의 호소력을 감소시켰다.

## 6. 맺 음 말

이상에서 우리는 제 3세계에 있어서의 마르크시즘의 전개 양상을 살펴 보

있다. 이러한 개괄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 3 세계에 있어서 마르크시즘은 대단히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으나 그 수용에 있어서는 꼭 선택적이었다는 점이다. 마르크시즘 자체를 多義적으로 해석해서 자국의 형편에 맞도록 변용하여 수용했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정통마르크시즘을 제 3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 3 세계에 있어서 마르크시즘은 대체로 실용적 성격을 지닌 채 수용됐다는 점이다. 물론 교조적 또는 전투적 형태로 수용된 예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마르크시즘보다 레닌이즘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르크시즘이 대체로 계획경제의 이념적 기초로 받아들여졌고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념적 합리화의 구실을 수행했다.

셋째, 제 3 세계에 있어서 마르크시즘은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수용되는 성향이 컸다는 점이다. 즉 민족주의의 수레를 타고 마르크시즘이 전파된 것이다. 이것은 이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이 대체로 반제국주의적·반식민주의적 성격을 갖고 전개되었다는 점에 미루어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에 대한 경계심이 드러나고 있음도 물론 공평하게 지적되어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金相浹

1963 『기독교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교도민주주의』, 서울, 지문각.

閔萬植

1971 『중남미의 정치와 경제』, 서울, 일신사.

1983 「민주주의와 제 3 세계의 사회주의」, 『외대』, Vol. 18.

邊衡尹

1980 「중속이론의 형성 배경과 최근 동향」, 『월간독서』, 7, 8월 합병호.

尹謹植

1981 『제 3 세계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서울, 중앙출판인쇄.

車基壁

1969 『근대화정치론』, 서울, 박영사.

洪淳鎬

1979 「블랙아프리카 지도자 역학론」, 金學俊 外(編), 『제 3 세계의 이해』, 서울, 형

성사.

'Aflag, Michael

1968 "The Socialist Ideology of the Ba'th," in Karpas (ed.): 185-192.

Anderson, Charles A., Fred R. von der Mehden and Crawford Young

1967 *Issues of Politic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Binder, Leonard

1964 *The Ideological Revolution in the Middle East*, New York, Wiley.

Draper, Theodore

1965 *Castroism: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Praeger.

Friedland, William H. and Carl G. Roskerg, Jr.(eds.)

1964 *African Social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Haykal, Muhammad H.

1968 "Communism and Ourselves: Seven Differences Between Communism and Arab Socialism," in Karpas(ed.):156-161.

Karpas, Kenal H.(ed.)

1968 *Political and Social Thought in the Contemporary Middle East*, New York, Praeger.

Martz, John D.

1970 "Latin American New Left," *World Politics*, January: 171-196.

von der Mehden, Fred R.

1969 *Politics of the Developing Nations*,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Micaud, Charles A.

1964 *Tunisia: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New York, Praeger.

Suárez, Andrés

1967 *Cuba: Castroism and Communism, 1959~1966*, Cambridge, MIT Press.

Thiem, R.

1965 "The African Road to Soci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0, No. 377(December): 14-16.